

退溪의 建築觀과 陶山書堂

金 東 旭

(경기대학교 교수)

머리글

退溪 李滉(1501-1570)은 조선을 대표하는 대유 학자이다. 조선 성리학이 세계 정신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에 퇴계의 학문 성과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있다고 평가된다. 대제학을 지낸 명망 있는 관리로써 또 주리론에 입각한 성리학의 대 학자로써 퇴계는 학문탐구와 구도생활로 일관한 생애를 보냈다.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후배 학자들을 성심으로 지도하는 자상한 스승의 면모와 집안의 세세한 문제에까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간 자애로운 家長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陶山十二歌를 비롯하여 자연을 노래하는 수 많은 시를 짓는 감성을 지닌 詩人이었다.

건축에 대한 도산의 관심과 실천도 당대 다른 유학자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40대 후반 이후, 자신의 고향 경승지에 적지 않은 수양처를 지었을 뿐 아니라 예법에 맞는 祠堂의 바른 제도를 보급하는 일에 열심이였다. 건물의 세부적인 技法이나 用語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나이 60이 되어 말년의 학문처로 삼은 陶山書堂은 퇴계의 건축관이 집약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 귀의하여 학문과 구도로 마지막 생을 보내기 위해 스스로의 설계로 지어진 도산서당은 퇴계 노년의 모든 생각이 응축된 건축의

결정체였다. 陶山書堂과 隴雲精舍로 구성된 이 학문처를 조성하는데에 僧侶 匠人 두사람의 존재가 있다. 사제 관계였던 法蓮과 淨一 두 승려였다. 대유학자와 승려장인,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결합속에서 도산서당은 탄생하였다. 도산서당에는 16세기 영남 선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건축공간의 한 전형이 담겨있다. 또 주변 자연과 건축이 서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아울러 승려 장인들의 기술적 축적이 배여있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구상하면서 그 내용을 동료나 제자 및 고향에 살고있던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편지에 적어 보냈다. 또 건물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서당 주변의 여러 시설물을 짓고 그 경관을 시로 노래하였다. 이런 글들이 모두 퇴계의 文集에 잘 남아있다.¹⁾ 또 서당에서 직접 선생의 가

1) 퇴계의 문집은 경자본으로 불리는 《退溪文集》, 번남본으로 불리는 《陶山全書》 등 몇 종류의 판본이 있으며 1916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경자본 등을 저본으로 한 《退溪全集》이 출판되었고 1958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에서 경자본을 보완하여 《退溪全書》를 간행한 바 있고 (1971년에 《增補 退溪全書》 5권으로 증보), 198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번남본 《陶山全書》를 간행하였다. 또 1990년에는 퇴계학연구소에서 《退溪學全書》를 내었다. 퇴계학연구소에서

르침을 받은 제자중에는 서당이 건립된 내력을 〈陶山書堂營建記〉로 작성하기도 하였다.²⁾

도산서당의 건립과정과 그 건축적 실체에 대해서는 퇴계의 문집을 이용하여 건립 과정과 승려 匠人의 활동을 고찰한 權五鳳(1995)의 연구³⁾가 있다. 또 서당을 비롯한 주변 건물에 대해서는 《陶山書院實測調查報告書》(1991)에서 정밀한 실측조사 결과 발표가 되었다.⁴⁾ 이 보고서중에 실린 도산서원 연혁⁵⁾에서는 퇴계의 연보를 통해서 퇴계의 남다른 건축적 관심이 정리되었고 또 퇴계 자신 및 그 제자가 작성한 서원 건립에 대한 중요한 문헌 소개가 이루어졌다.

퇴계가 동료 및 제자에게 보낸 많은 편지속에 도산서당을 계획하고 공간을 구상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또 승려 장인들의 활동상도 일면이나마 드러나있다. 완성된 서당을 두고 제자는 집이 되어진 내력을 적었다. 또 퇴계 자신은 서당과 서당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시로 노래하였다. 이런 글 속에 퇴계의 건축관이 잘 농축되어 있다. 도산서당은 지금도 비교적 창건시의 모습을 잘 남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나 실측 조사 작업을 참고하면서 퇴계가 동료 및 제자에게 보낸 편지속에 적은 자신의 서당 건물에 대한 구상, 건물이 완성되고 난 후에 주변 경관을 노래한 시 등을 바탕으로 해서 도산서당의 실체와 그 안에 담겨있는 퇴계의 건축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退溪의 生涯와 建築에 대한 관심

퇴계는 70세를 살면서 생의 대부분을 고향 禮安에서 학문 탐구로 보냈다. 34세에 관직생활에 들어가 약 15년간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였지만

는 1989년부터 전 문집의 번역에 착수하여 1996년 현재 외편까지 21책이 번역 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주로 《陶山全書》를 참고하였으며 번역문 인용은 퇴계학연구소간 《退溪全書》에 의존하였으나 일부 건축 관련 기사는 필자가 다시 번역한 부분도 있다.

나이 50 가까이 되면서 고향에 내려와 자연을 벗삼으면서 성리학의 탐구와 제자 양성으로 말년을 지냈다. 고향에 내려 온 이후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 자신의 살림집을 비롯해서 여러 채의 학문 수양을 위한 건물을 지었고 건축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었다.

퇴계는 1501년 경상도 예안현 溫溪里에서 부친 李堧의 7남1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집안은 여러 대 전부터 은계리에 정착하였고 조부는 進士를 지낸바 있다. 퇴계가 출생할 때에는 부친은 비교적 탄탄한 경제력을 쌓아 중소지주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부친이 처가로부터 많은 서적을 인수 받아 집안에 많은 귀한 서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고향에서 작은 아버지 堧로부터 학문을 닦은 퇴계는 27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한 동안 서울로 올라가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으며 34세에 정식으로 문과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39세에는 弘文館修撰이되어 賜暇讀書 즉 특별 휴가를 받아 讀書堂에 가서 오로지 책을 읽고 학문을 탐구하는

2) 이 영건기는 퇴계 제자중 하나인 琴蘭秀가 서당 건립의 내력 및 서당과 주변 건물의 명칭, 규모, 실내 구성 등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惺齋先生文集》에 진한다.

3) 權五鳳, 李退溪家書의 綜合的研究(京都, 中文出版社, 1995)의 제3장, 제4절 堂宇造成 pp.384-419

4) 보고서는 영남대학교 金一鎭교수 주관으로 서원 건물의 정밀한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1991년 安東郡과 嶺南大民族文化研究所에서 《陶山書院實測調查報告書》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5) 丁淳日, 〈陶山書院 沿革〉(《陶山書院實測調查報告書》, 1991, 소수)

6) 퇴계의 집안은 5대조 李子脩가 鄉貢舉人으로 잡과에 급제, 군공으로 土族 반열에 들어 眞寶 현치를 벗어나 豊山縣에 이주하였으며 당시 명문거족과 連婚으로 지위를 굳혔고 조부때 禮安 溫惠里에 卜居하여 良田 수백頃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李樹健, 〈退溪 李滉 家門의 財産山來와 그 所有形態〉,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潮閣-》, 1995 pp.237-270)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정계가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으로 혼란해지고 드디어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몸이 아프다는 구실을 대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이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향리에서 지내면서 성리학의 학문 탐구에 몰두하였다. 고향에 내려온 이후에도 완전히 관직에서 떠나지는 못하여서 풍기군수를 비롯 成均館大司成, 弘文館副提學에 제수되고 나이 68세 때에는 大提學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직생활은 대개 잠시동안에 그치고 향시 향리에 되 돌아와 학문에 정진하였다.

고향에 내려온 후에 퇴계는 온계리 생가에서 조금 떨어진 퇴계에 터를 잡고 살 집을 새로 짓고 또 몇 군데 학문과 수양을 위한 건물이나 臺를 지었다. 고향에 내려 온 이듬해 46세가 되던 1546년에 養眞庵을 지었다. 퇴계 생가인 온계리 집은 비교적 사람의 출입이 잦은 길가에 면하고 있었다. 처음에 퇴계는 이 집 남쪽에 작은 집을 짓고 지낼 작정이었지만 주변에 인가가 많아 한적한 맛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동남 방향 약 3km되는 계곡 깊은 곳에 작은 암자를 지어 양진암이라고 하였다. 이곳 계류는 본래 兎溪라고 불렀는데 이를 退溪로 바꾸고 자신의 호로 삼았다. 다시 잠시 풍기군수를 지내고 고향에 내려와 49세 때 계류 서쪽에 寒樓庵을 지었다.

한서암을 지은 이듬해 1550년에는 본가를 떠나 퇴계 서쪽에 자신의 집을 새로 장만하여 완전히 정착하였다. 또 집 부근에 光影堂을 짓고 滄浪臺를 쌓았다. 이 때 퇴계의 집에서 산 하나를 넘는 위치에는 정1품 知中樞府使를 지낸바 있고 당대 명 시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龔巖 李賢輔가 노년을 고향에서 지내고 있었다. 농암은 직접 한서암에 찾아와 퇴계를 만났고 퇴계도 자주 농암과 함께 시를 짓고 자연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이 때 농암의 나이 84세였고 퇴계는 50이었다.

새 집을 짓고 부근에 광영당, 창랑대를 지어 자연을 감상하는 생활을 하였으나 여기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집 뒷산인 靈芝山 반대편 낙동강 상류물이 크게 격여 흐르는 강가에 집터를 마련하여 공부에 몰두할 장소를 얻었다. 이곳에 작은 서

당을 짓고 또 거처하며 수양할 정사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퇴계의 마지막 거처가 된 陶山書堂과 隴雲精舍이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짓고나서는 서당 주변과 영지산 일대 명소에 수 많은 인공과 자연의 경승지를 찾아 이름을 짓고 경치를 감상하였다.

퇴계는 40대말부터 관직을 떠나 고향에 내려가 적어도 다섯 군데 이상의 건물 신축을 하였고 자연을 감상하는 여러 대를 쌓기도 하다. 선비가 자신의 고향 주변에 학문을 위한 서당이나 정사 등을 짓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관행이었다고 하겠다. 번잡한 관직생활을 떠나 시골에서 한가한 전원생활을 노래한 唐代 陶淵明의 시는 이러한 경향을 널리 유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퇴계는 어려서부터 도연명의 시에 심취하였으며 말년에 도산서당을 짓고 그것에 있으면서도 늘 도연명의 시를 애송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 성리학을 완성시킨 朱子の 생애 역시 조선의 선비에게 관직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데 영향을 주었다. 주자는 후년에 관직을 버리고 武夷山에 들어가 武夷精舍를 짓고 학문을 하며 자연을 벗 삼아 학문과 구도에 정진하였다. 주자의 行狀 역시 퇴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퇴계는 본격적으로 고향에 내려가 정착하기 시작한 50세 때에 朱子全書 한 절을 구하여 그 연구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또 무이산의 한가류운 정경을 그린 武夷圖를 얻어 이를 벽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주자는 무이산에서 자연에 묻히어 지내는 한가한 생활을 노래하여 武夷權歌를 지었다. 퇴계는 도산에서 이를 본 받아 국문으로 된 陶山十二曲을 지었다.⁷⁾

도연명과 주자의 영향은 물론 퇴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당시 조선에 사는 대부분 선비들에게 미쳤다. 관직을 떠나 전원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의 이상적인 선비상으로 생각하였다. 16세기에

7) 《陶山全書》, 卷22, 書, 九曲十絕亦希一餐에 한가한 때에 武夷誌를 향시 읽었다고 하며 당시 여러 사람이 武夷權歌에 화답한 노래에 대해 그 내용을 평가한 대목이 나온다.

표 1 퇴계 생애의 주요한 일과 건축 관련 기사
(《增補 退溪全書》, 退陶先生言行錄, 卷6, 年譜에서)

연 대(나이)	주 요 기 사
1501년	禮安縣 溫溪里에서 좌찬성 埴의 7남1녀중 막내로 출생
1512년(12세)	숙부 松齋公 堦에게 논어 배움
1514년(14세)	陶淵明의 시를 즐겨 읽음
1527년(27세)	進士試 합격
1528년(28세)	司馬試 급제. 성균관에 들어감
1533년(33세)	재차 성균관에 들어감
1537년(37세)	문과 급제. 承文院 副正字로 관계에 발 들임
1534년(34세)	모친상으로 3년간 복상
1539년(39세)	弘文館 修撰
1543년(43세)	10월 成均館 司成. 이해 성묘를 구실로 낙향
1544년(44세)	2월 弘文館 校理로 소환. 이후 낙향과 소환을 거듭함
1546년(46세)	낙동강 菟溪의 東巖에 養眞庵 짓고 독서와 구도. 이 때 菟溪를 退溪로 고치고 自號로 함
1548년(48세)	정월 외직을 희망하여 丹陽郡守를 거쳐 豐基郡守
1549년(49세)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감
1550년(50세)	2월 퇴계 서쪽에 卜居함(처음에 霞明洞 紫雲峯아래 집을 짓고자 하다가 竹洞으로 옮기고 다시 洞이 좁고 계류가 없기에 溪上으로 세 번째 옮김) 寒栖庵 짓다.
	4월 光影堂 파다. 이후 韓巖 李賢輔와 교유
1552년(52세)	4월 弘文館 校理로 환도
	7월 成均館大司成에 오르다
1555년(55세)	농암죽음. 겨울 淸涼山에서 踰月하고 돌아옴
1556년(56세)	弘文館副提學
1557년(57세)	3월 陶山 남쪽에 서당터 얻다.
1558년(58세)	3월 滄浪臺 파다(후에 天淵臺로 고침)
	윤7월 왕명으로 입도. 10월 成均館大司成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1560년(60세)	11월 陶山書堂 이룩되다
1561년(61세)	3월 節友社 쌓다.
	隴雲精舍 이룩되다
1564년(64세)	여러 제자들과 淸涼山에 오르다
	여러차례 관직에 제수되어 入都하였다가 還鄉하다
1568년(68세)	8월 弘文館大提學.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1570년(70세)	12월 臨終

많은 조선의 선비들은 자의에서 또는 타의에서 이것을 실천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정계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정치 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하였다. 많은 선비들이 정계에서 축출당하여 타의에 의해 향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부 선비들은 처음부터 관직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은거하였다. 퇴계의 경우 직접적인 사화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을사사화이후 더 이상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병을 핑계로 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

한편 퇴계는 건축 자체에 남다른 관심과 조예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후배에게 일러주는 과정에서 기둥의 배열과 神位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가 하면 자신의 집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자식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기도 하는데서 그런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청주목사를 지낸 후학 李楨이 퇴계에게 사당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 사당 건물은 3칸인데 모셔야 할 신위가 4대일 경우 실내에서 신위 배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⁸⁾ 조상에 대한 신위는 조선초까지만 해도 古禮에 따라 3대조까지를 봉향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주자는 군주와 신하가 다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4대봉사를 하도록 하였다.⁹⁾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면서 조선의 선비층에서도 종래의 3대봉사에서 4대봉사로 서서히 전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사당 건물 칸수였다. 당시 사당 건물은 3칸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당3칸에 4개의 감실을 나누는 것이 궁궁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뜻을 참고할 만한 글이 없습니다. 家禮本注에 소위 5架屋이란 것이 있는데 즉 지금의 소위 前後退屋을 말합니다. 지금 3칸에 넷을 주어 균형이 흐트러짐을 면하고자 한다면 그 後退 제2架의 중간 두 기둥을 세우지 말고 그 두 들보를 그냥 보내어 제3架의 기둥 머리에 걸

치게 합니다. 그러면 후퇴의 전면에 기둥 없는 곳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걸린 들보에 횡으로 창방을 걸치고 아래는 歸機(속칭하여 귀틀)木에 橫枋(속칭하여 地方木)을 걸고 나서 4截로 나누되 매 재에 하나의 감실을 두면 비로서 균등히 나누어져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기는 잘못을 없게 될 것입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칫수에 대해서도 매칸을 8척으로 하면 전체가 24척이 되고 그 가운데 동서 양측면 4척씩을 비워두고 나머지 16척을 각 4척씩으로 나누면 4척씩의 감실 넷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은 당시 목조 건물의 내부 구조에 대해 상당한 식견이 필요하다. 또 구체적인 칫수를 제시하여 감실 넷의 칫수를 동일하게 만들도록 칫수 배분까지 한 것은 실내 설계에 가까운 안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퇴계는 실내 전후퇴를 갖춘 건물구조에 대해서 소상한 지식을 갖고있을 뿐 아니라 후퇴 기둥을 세우지 않고 그 공간을 넷으로 등분해서 감실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 구체적인 칫수까지 정해주어 하나의 사당 공간의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 퇴계리 집에 살고 있던 아들에게 준 편지속에는 집의 사당 세우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집의 濕氣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일러주기도 하였다.

“네가 사는 집 방의 구들이 습하고 냉하여 거처할 수 없는 지경이다. 내가 병을 얻은 곳도 그 곳이니라. 너는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의 뒷담이 낮고 물길에 막혀서 水氣가 방 안으로 스며든다. 지금 마땅히 그 담장을 헐어내고 물이 통하도록하여 고인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그 구들도 고쳐야만 우환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담을 허물지 않아 물이 잘 흐르지 못한다면 구들을 고쳐도 무익할 것이니

8) 《陶山全書》,續內集 卷30,書,〈答李剛而問目〉

9) 張哲秀, 〈祠堂의 歷史와 位置에 관한 研究〉, 文化財研究所,1990

라.”¹⁰⁾

이런 편지에서도 구체적인 건물의 지식을 갖추고 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통상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한다는 소위 조선 선비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이다. 대학자 퇴계의 또 다른 자상한 가정적인 모습이다.

2. 退溪의 陶山書堂 設計와 法蓮, 淨一の 공사주관

퇴계의 위대한 학문이 결실을 맺은 곳은 陶山書堂이라고 하겠다. 이곳에서 성리학의 새로운 진면목이 퇴계에 의해 열렸다. 또 조선중기 영남학계를 이끌어 가는 걸출한 수 많은 퇴계의 제자들이 대개 도산서당을 찾아와 퇴계를 직접 만나보고 학문을 전수받았다. 퇴계는 도산에 서당 지을 터를 구하고 나서 그 위치에 크게 흡족해 하였으며 그 터에 도산사당과 농운정사를 짓고자 하였다. 퇴계 자신이 직접 건물 설계를 하여 그림을 그렸다. 공사는 전부터 퇴계 집안과 교류를 갖고 있던 龍壽寺의 승려 法蓮이 일을 맡았다가 법련이 도중에 사망하게 되자 그의 제자인 淨一에게로 계승되어 정일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다.

퇴계가 서당 터를 얻은 것은 나이 57세되던 1557년이었다. 그 위치는 靈芝山 기슭 낙동강 상류 큰 물길이 흐르는 바로 강가로, 산 반대쪽은 바로 퇴계가 자신의 살림집을 지은 퇴계리가 된다. 집과 서당 터는 직선거리로 치면 약 1.5km 정도이다. 퇴계는 서당 터를 가리켜 “陶山 아래”라고 불렀다. 서당 터는 영지산의 동쪽 줄기가 이어져 내려오는 기슭이었다. 이곳의 지명은 산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도산이라고 하였다는 설도 있고 옛날에 이곳에 도자가 굽는 가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고 하였다.¹¹⁾

서당터에서 강을 따라 약 2 km 내려가면 분천리가 되고 바로 농암 이현보가 말년을 보내며 애

일당 등을 짓고 은거하던 곳이다. 이 터를 얻은 일에 대해 퇴계는 주변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년의 기쁜일” 또는 “만년의 관심사”라고 말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49세에 관직을 사퇴하고 50세에 퇴계리에 새 집을 장만한 퇴계는 이 후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대개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퇴계리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10년만에 새로 학문에 몰두할 장소를 얻은 것이다. 서당 터를 구하여 서당과 정사 건립을 계획하던 퇴계는 이듬해 뜻하지 않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서당 건립에 큰 의욕을 갖고있던 퇴계는 서울에 가게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고향에 남아있는 아들 篤과 주변 친지에게 집 짓는 일을 계속 진전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일을 부탁한 친지는 당시 분천리에 살고있던 농암의 아들 李文樑과 퇴계의 제자로 서당터가 바라다 보이는 하류 약 4km 거리에 살고 있던 趙穆 두 사람이었다. 이문량은 퇴계보다 3살 위였고 조목은 22년 연하로 퇴계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1558년 윤7월 서울에 올라간 퇴계는 그 해 가을경에 이문량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의 안식처를 도산에다 마련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만년의 가장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집을 짓기도 전에 갑자기 이번 걸음을 하게 되었으니, 造物의 익살이 한결같이 아다지도 많습니까? 그 땅을 비록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본다면 감히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겠는데 蓮僧이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니 이는 하나의 기이한 인연입니다. 내가 떠나 올 때 연승이 다짐하기를, 먼저 기와를 구워 놓고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난달 글의 편지에 ‘연승이 먼저 집부터 지으려고 하니 봄날이 되어 시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圖本부터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겨울철 한가할 때에 하나 하나 자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시다. -- (중략) -- 그리하여 이미 도본을 그려 준에게 보내면서, 연승을 불러 보이고 설명을

10) 《陶山全書》, 遺集 內篇, 〈答稿〉

11) 《陶山全書》 卷2, 詩, 〈陶山雜詠并序〉

하라고 하였더니, 뜻밖에 준이 저의 외가 장례 일로 宜春에 내려 갔다니 그 도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이 돌아올 시기는 설달 그믐경이나 초봄 무렵이 될 것인데, 비록 와서 도본을 본다 하더라도 겨울철은 이미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본이란 것이 너무 영성하여 쓸 수 없기에 이제 새로 고쳐 하나를 그려 보냅니다. 다만 곧 바로 연승에게 전해주면 필연코 잘 납득을 못할 것이니, 생각건대, 碧翁(이문량의 호가 碧梧임)과 月川 趙士敬(조목은 호가 月川, 자가 士敬임)은 도산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으니, 뒷날 집이 완성되면 내왕하는 일이 남 먼저 일 것이고, 온계와 오천에 계시는 분들 보다는 필연코 잦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연승에게 가르쳐 주어서 계획대로 집을 짓게 하고, 법연히 보는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알맞기 때문에 구구한 말씀을 드리오니, 속히 연승을 불러 소상히 설명해서 그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만약 당신 마음에 온당하지 못한데가 있으며 또한 사경을 불러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蓮은 도토마리(都吐麻里) 屋制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 제도는 좁은 곳이 많아서 낙수물이 생기고 지붕을 덮기도 어렵습니다. 또 房, 室, 廳, 堂이 궁박하게 마주하여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의 제도는 堂을 반드시 정남향으로 해서 예를 행하는데 편하게 하고 齋는 반드시 서쪽에 두고 뒤뜰을 마주하도록 하여 아늑한 정취가 있도록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방, 실, 부엌, 곳집, 문, 마당, 창호도 모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이 구조가 바뀌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남쪽 변의 세칸에 보와 도리는 모두 8척, 북쪽 변 네칸은 도리는 남쪽과 같이하고, 보는 7척으로 하는데 그 뒤에 假簷을 달기 때문입니다. 중앙의 동쪽과 서쪽 두칸은 보 8척, 도리 7척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뜰이 너무 작아 뒷바 처럼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칸은 비록 지붕이 매우 낮지만 짧은 처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 들일 수 있으니 뜰이 좁은들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당과 재를 이용할 때는 모두 뜰 안쪽을 향하게 하지 말고 다만 부엌등만 밝게 하면 될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편지를 보면, 퇴계는 자신이 직접 서당과 정사를 위한 집의 평면을 계획하고 집의 치수가

지 상세하게 정하였음을 할 수 있다.

또 법연이 생각하고 있던 도토마리 집 구조에 대해 그 단점을 지적하여 집을 예를 행하는데 알맞는 형태로 반듯하게 꾸며도록 하였음도 발견하게 된다. 이 글에서 이두식으로 [都吐麻里]라고 표기한 도토마리집은 가운데로 낙수물이 모여 들고 방들이 서로 마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퇴계는 바로 이 점이 서당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도토마리집은 근년까지 안동 지방의 민가에서 자주 쓰이던 하나의 유형을 가리키는데 현재의 도토마리집은 위에서 설명한 형태와 반드시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존하는 도토마리집은 3칸 정도의 한 일자 평면에 가운데 부엌이 놓이고 좌우로 방이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¹²⁾ 그러나 퇴계의 글에서 말하는 도토마리 옥제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일종의 ㅁ 자 평면과 비슷한 내용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배틀에 쓰는 도토마리가 가운데가 비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ㅁ 자형이 본래의 도토마리집의 원 모습이 아닌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집의 치수에 대해서는 보를 8자 도리를 8자 또는 7자로 하고 보가 7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침 즉 덧 처마를 달아내도록 하는 등 집 구조에 비교적 소상한데 까지 언급하고 있다.

퇴계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서당 건립에 크게 마음을 쓰고 있었다. 앞서 이문량에게 상세한 편지를 적는 동시에 아들 준과 조목에게도 집 지을 일을 당부하도록 하였다. 이들 여러 편지에서 퇴계는 공사를 맡기로 한 승려 法蓮의 일을 자주 언급하였다. 퇴계는 법련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듯하여 그가 서당 지을 일을 맡아 준 것을 크게 다행한 일로 여겼다는 뜻을 편지에 자주 적었다.

法蓮은 龍壽寺의 중이었다. 용수사는 퇴계의 본가인 온계리에서 개울 상류로 약 4km 들어간 용두산 기슭에 있는 절이었다.¹³⁾ 이

12) 金一鎭, <도토말이집> (《사보청구》, 1991, 신춘호, 13집)에 도토말이 집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동댐에 이전된 두 집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절은 퇴계 집안이 당시에든 忌祭를 지내는 곳이었고 단오 제사 등에 출입하던 곳이었다.¹⁴⁾ 퇴계를 비롯해 그 형제들은 어렸을 때 용수사에서 글공부를 하였으며 아들은 물론 손자도 이 절에서 독서하였다.¹⁵⁾

이 절의 승려 법련은 아마도 건축공사 일에 익숙한 장인이었던 듯하여 퇴계는 법련이 서당 짓는 일을 맡겼다는 말을 크게 반기고 자신의 사당 구상 안을 일러 주기도 하였다. ‘贈師門法蓮’이란 제목으로 퇴계가 법련에게 준 시의 서문에 퇴계가 자재를 조달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으나 연이 기꺼이 일을 맡았음을 몹시 기뻐하였다는 뜻을 적었다.¹⁶⁾

법련은 퇴계로부터 서당 건립을 부탁받고 처음에 기와를 먼저 굽고나서 집을 세우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법련과 서당 건립을 의논한 것이 1558년 봄에서 초여름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해 윤7월에 퇴계는 나라의 부름으로 서울로 가게 되었다. 퇴계가 향리를 떠난 후에 일이 원만히 진전되지 않은 듯하다. 서울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법련이 처음 말과 달리 건물을 먼저 세우고 기와는 나중에 굽겠다는’ 뜻을 듣고 어느 경우도 좋으니 아무쪼록 일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은 대목이 보인다.¹⁷⁾

그러는 도중에 아마도 그해 겨울을 넘기기 전에 법련이 갑자기 죽고 말았다.¹⁸⁾ 소식을 접한 퇴계는 법련의 타계를 몹시 애석해하고 또 집을 짓는 일을 누가 과연 법련처럼 열심을 내어 뒤를 감당해 줄지 크게 염려하였다. 법련의 뒤를 이을 장인을 구하는 일과 기와를 굽는 방안 등에 대해 퇴계는 자주 아들과 이문량, 조목과 편지로 상의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후임자가 이듬해인 1559년에 선정되었는데 같은 용수사의 중으로 법련의 제자인 淨一이 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 서당 공사는 정일에 의해 1560년 7월에 착수되어 그해 11월에는 준공을 보았다. 다만 이 때는 서당만 이루

어지고 정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정사가 1561년에도 공사가 계속되어 아마도 그 해를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¹⁹⁾

도산서당과 농운정사가 완성된 뒤에 퇴계의 가까운 제자들인 趙穆과 權好文은 각각 淨一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를 지었다. 조목은 “喚雨林中 --”으로 시작하는 시이고 권호문은 “次題陶山幹僧淨一軸”이라는 제목으로 된 7언절구이다. 시의 내용은 두 시가 모두 정

14) 아들 준에게 보낸 편지에 “어제 기제사를 전에 말한 대로 용수에서 지냈느냐? 내가 이미 떠나기를 중지했으면서도 가서 참석하지 못했으니 매우 죄스럽다. -- 일간에 내가 여기 있다가 25,6일 경에 용수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너는 단오 제사대 나오도록 하여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 글로 미루어 당시 퇴계의 집안은 여전히 절에 가서 기제를 지내고 있었고 명절을 절에서 지내는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慵齋叢話》에 의하면 저자 成倪이 살던 15세기말에도 사대부들이 여전히 절에 가서 집안 제사를 지내는 것을 지적인 대목이 보이는데 바로 퇴계 집안의 경우도 그 한 사례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陶山全書》 遺集 卷2, 內篇, 〈寄嶺〉)

15) 陶山全書 卷1, 詩 中에 “先第三兄弟四兄少時讀書龍壽寺先叔父松齋府君寄詩一律”, 및 “孫兒安道近住龍壽寺讀書, 因追憶先生爲子姪訓戒之詩” 등의 제목이 보인다. 또 陶山全書 遺集 卷7, 內篇의 준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16) 陶山全書 外篇 詩 贈師門法蓮并序 참조

17) 《陶山全書》 遺集 卷8, 內篇 〈答嶺〉

18) 무오년 즉 1558년에 이문량에게 보낸 편지에 법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하늘이 어찌나를 돕지 않는가 탄식한 대목이 보이고 또 같은 무오년에 조목에게 보낸 편지에도 법련이 홀연히 세상을 뜬 것을 크게 탄식하면서 과연 누가 법련을 대신해서 그 만큼 능력을 갖추고 또 열심을 내어 스스로 일을 맡을 수 있을지 염려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 법련은 1558년 겨울중에 갑자기 세상을 뜬 것으로 볼 수 있다.

19) 《陶山全書》 續內集, 卷29, 書에 신유년(1561)에 조사경에게 보낸 편지중에 농운정사가 아직 장악이 한창이라는 대목이 보인다.

13) 용수사는 지금도 온계리 계류 위 용두산 아래 있다. 그러나 사찰에 오래된 유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최근에 신축한 대웅전과 큰 규모의 요사채 2동이 있을 따름이다.

일이 功力과 道力을 발휘하여 농운정사를 지은 공적을 노래한 것이었다.²⁰⁾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짓는데 정일의 공로가 컸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당시 안동을 비롯한 지방 각지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민간의 건물은 대개 승려 장인들이 공사를 맡아하는 것이 관례였다. 퇴계와 가까운 인물로 유사한 사례 하나만 들면 농암 이현보가 1543년 1월에 영지산에 靈芝精舍를 지었는데 평소에 친분이 있는 중 祖澄에게 자재를 주어 정사를 짓도록 하였다는 기사를 들 수 있다.²¹⁾ 또 멀리서 전라도 해남에서 眉巖 柳希春이 1576년 자신의 집을 증축하면서 승려에게 풍수를 살펴보고 하고 또 집 짓는 일도 다른 승랑에게 맡긴 사례를 들 수 있다.²²⁾ 이와 유사한 사례는 특히 15,16세기 영남,호남등지 사대부 관련 문집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당시 사대부들의 건축을 대부분 인근 사찰의 승려들이 장인일을 맡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지방에 따로 건축일을 잘 아는 민간인 장인이 드물었던데에 기인하며 또 승려중에는 건축일을 할 줄 아는 유능한 장인이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3. 陶山書堂의 建築形態

서당과 정사가 완성된 후에 퇴계는 집이 지어진 내력을 간단히 밝히고 각 실의 이름과 그 의미를 밝혔다. 陶山雜詠에 실린 글이다.

“승려 法蓮이란 자가 있어 그 일을 관장했다가 미구에 법련이 죽고 정일이란 자가 뒤를 이었다. 그래서 丁巳년으로부터 辛酉년에 이르는 무릇 5년간에 당과 사 두 집이 대강 이루어져 거처할 만큼 되었다. 당은 모두 삼칸인데 중앙의 한칸은

玩樂齋라 이름하였으니 朱先生의 名堂室記의 ‘樂而玩之하여 足以終吾身토록 而不厭’이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며, 동의 한칸은 巖栖軒이라 이름했으니 雲谷詩의 ‘自信久未能하여 巖栖翼微效’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다. 또 합쳐서 편액을도산서당이라 한다. 솜은 8칸인데 齋는 時習이라 하고 寮는 止宿이요 軒은 觀瀾이니 합해서 편액을 隴雲精舍라 한다.”

丁巳년은 1557년 즉 퇴계가 도산에 터를 잡은 해이고 辛酉년은 1561년으로 농운정사가 완성된 해이다. 완성된 건물은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두 동이다. 도산서당은 3칸인데 가운데 1칸이 완락재 동1칸이 암서헌이다. 농운정사는 모두 8칸인데 시습재, 지숙료, 관란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앞서 퇴계는 서울에서 이문량에게 편지로 말하기를 법련이 구상한 도토마리 옥제를 피하여 남변3칸, 북변4칸에 동서로 2칸이 있는 건물을 계획하였다고 하였다. 또 당은 행례에 편하도록 정남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퇴계의 편지 내용과 완성된 후에 적은 건물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마도 실제공사가 진행되면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나 짐작된다.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퇴계 제자중의 한 사람인 琴蘭秀는 〈陶山書堂營建記事〉를 지어 공사 전말과 함께 관련 기사를 적었다. 그 가운데 서당의 실내를 묘사한 부분이 있다.

“巖栖軒의 位置와 向方은 남쪽을 향했고 3間の 체도를 이용하였는데²³⁾, 三面에 退柱를 세우고 東面으로 翼簷을 덮었던 까닭에 매우 맑고 깨끗하였다. 방 가운데 서북쪽 벽에 書架를 만들고 서면은 격장을 두어서 반은 침실로 남겨 두었다. 내가 서가를 잠자리 방 밑으로 두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냐고 물었더니, ‘이곳은 내가 잠자고 기거하는 곳으로 聖賢의 經訓을 등뒤에 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

20) 조목의 시는 “喚雨林中一兩鳩 山蔬薄菜爲賓談 從來念汝當時事 薪水雲廚近三秋”(《月川先生文集》卷3,詩)이고 권호문의 시는 “林棲不作鳳池鳩 爲已功兼爲道談 鶴骨已仙梅影冷 隴雲從此寂千秋”(《松巖集》,卷1,詩)이다.

21) 《農巖先生文集》,新增二,年譜

22) 《眉巖日記草》의 1575년에서 1576년사이 기사. 미암의 건물 조영에 대해서는 李鎬淵,〈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건축역사연구 제2호,1992.12)에 자세한 고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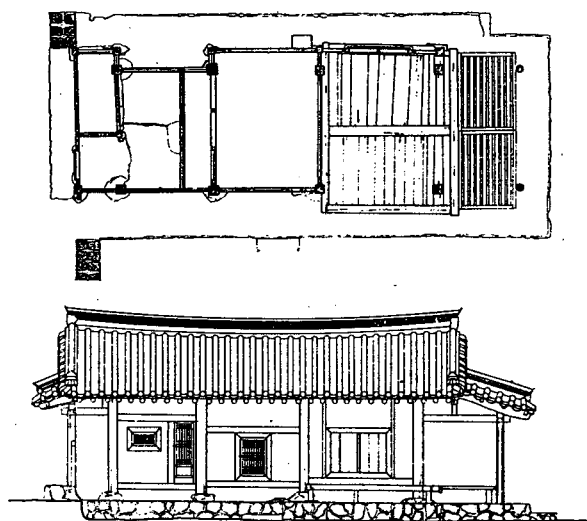


그림 1 도산서당 평면도 및 정면도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에서)

가운데 古書 천여권을 좌우로 서가에 나누어 꽂았으며, 화분 한 개, 책상 한 개, 연갑 하나. 지팡이 한 개, 침구, 돛자리, 향로, 혼천의를 두었다. 남벽 상면에는 가로로 시렁을 걸어 옷상자와 서류를 넣는 상자를 두고 이 밖의 다른 물건은 없었다. 서가에 비치한 서첩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어지럽지 않았으며 매년 7월이면 책을 별에 말렸는데 溪上 본택에 소장한 책과 번갈아 교대하여 왕래하였으므로 시기가 다소 많이 걸리거나 짧아지기도 하였다. 내가 두 곳을 출입하여 책 목록대장을 정리하여 보니 모두 합하여 1천7백여권이었다.”

금난수는 퇴계보다 29년 연하의 제자로 도산서

당이 완성된 후 가까이서 선생을 도왔다. 따라서 위에 적은 영건기사는 서당 건립후 선생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건물과 관련한 사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에 의하면 서당은 3간의 제도이고 3면에 퇴주를 세우고 동면에는 익침을 달았다고 하였다. 건물은 남향하여 3간으로 되었으며 3면에 퇴주를 세웠다고 하므로 몸채의 3면으로 퇴 기둥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고 동면에 익침 즉 소위 가적 또는 가섭지붕²⁴⁾ 같은 것을 달아 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실내는 온돌방이 있는 부분의 서북쪽에 서가를 두고 서쪽은 벽 바깥으로 벽장을 두고 실내 절반을 침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현존하는 도산서당은 위 기사에서 말하는 형태나 실내 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도산서당은 도산서원 경내 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으로 돌담으로 구획된 안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낮은 자연석 기단위에 정면 3간 측면 1간을 이루고 있다. 동쪽 1간은 마루이고 가운데 1

23) 이 부분의 본문은 “巖栖軒位勢面陽用三間之制而三面立退柱--”로 되어 있다. 이 문단에 대해서 丁淳目的是 “암서헌의 位置와 向方이 ‘陽用三間’의 制度인데, 삼면에 퇴주를 세우고--”로 번역한 바 있다.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 도산서원의 연혁) 양용삼간을 하나의 고유한 개념으로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서는 ‘位勢面陽’에서 일단 끊어 ‘위치와 향방은 남쪽으로 하고’로 풀이하고 그 뒤를 ‘用三間之制’ 즉 ‘삼간의 제도를 이용하였다’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4) 맞배지붕의 박공면에 지붕을 덧 달아 낸 것을 韓國建築辭典(張起仁, 1985)에서는 가적이라고 하였고 陶山書院實測調査報告書에서는 가섭지붕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두 책의 용어를 제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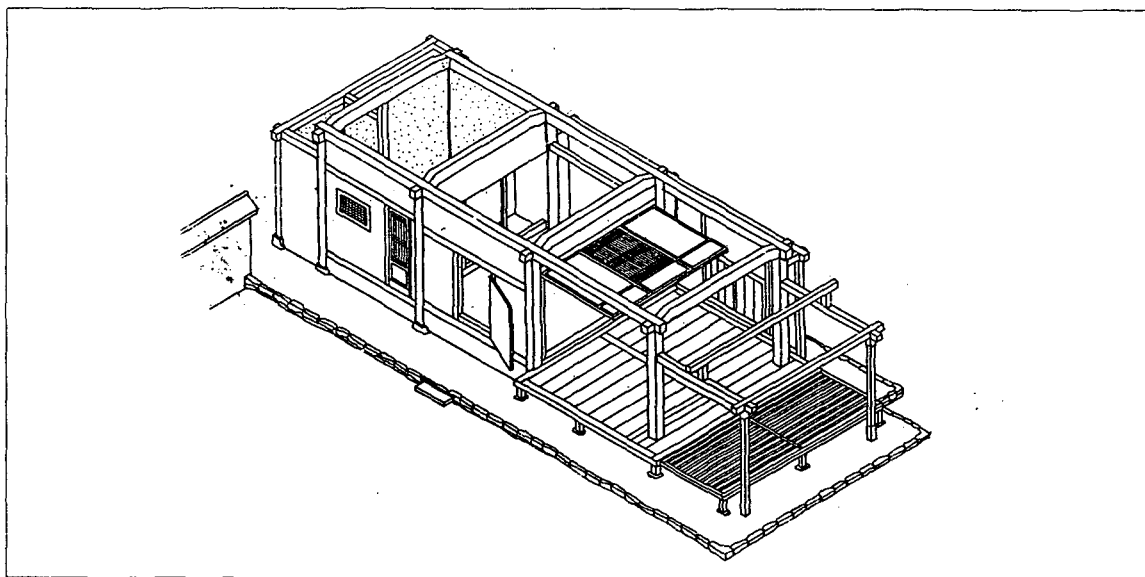


그림 2 도산서당의 엑소노메트릭

간이 방 그리고 서쪽 끝 1간은 부엌으로 되어 있다. 현재도 마루방에는 암서헌이라는 편액이 있고 가운데 운동방에는 완락재라는 작은 편액이 있어서 퇴계의 도산잡영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한편 건물 동,서 북쪽에는 모두 퇴 기둥이 세워져 3면 퇴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동면의 퇴는 기둥을 동쪽으로 반간 정도 내밀고 그 위에 따로 지붕을 걸구하였다. 위 영건기에서 익첨이라고 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북쪽의 퇴 기둥은 몸채 기둥과 불과 1자반 정도 떨어져 있고 서쪽은 약 3자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고 지붕도 동쪽과 마찬가지로 따로 가설되어 있다. 이런 점들은 모두 위에 인용한 도산잡영이나 도산서당영건기와 일치하는 것이다.²⁵⁾

도산서당은 자연석 주초위에 각주를 세운 민도

리 건물로 가구는 3량가에 동자주 대공을 세워종도리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특별한 장식도 없고 전체적으로 매우 간소한 구조이다. 현존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재를 살펴볼 때 도산서당은 16세기 퇴계 생존시 건립된 건물이 큰 개조 없이 그대로 존속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위의 기사 내용과 건물의 일치는 물론 현존 건물의 기둥이나 보등 주요 부재의 가공수법등에서도 추정된다.

도산서당이 약 4백년 세월을 버티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도산서원이 되면서 건물의 보존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퇴계의 사후, 서당을 그대로 둔 채 선생의 사당을 세우고 곧 도산서원을 창설하였다. 다행히 선생이 거쳐하던 서당 건물은 선생의 유품을 보존하는 용도로 사용하여²⁶⁾ 거의 건물에 손을 대지 않고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농운정사는 도산잡영에서 전체 8간이고 시습재, 지숙료, 판란헌이 있다고 하였다. 건물의

25)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에서는 이 3면의 퇴 기둥이 있는 부분을 후대에 증설한 것이라고 하였다.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부분은 퇴계의 기록에 이미 제시된 것이므로 비록 현재의 퇴 기둥 부분이 몸채와 구분되는 후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창건시에 이미 퇴 기둥과 퇴칸이 존재하였다는데 변함은 없다고 하겠다.

26) 17세기 대표적 남인 계통 학자 愚潭 丁時翰 (1625-1707)의 〈山中日記〉(《愚潭全集》소수)에 의하면 우담이 1688년 도산서원을 방문하였을 때 도산서당 완락재에는 선생이 쓰던 책상 등의 물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 기사만으로는 짐작이 어렵다. 현재의 건물은 평면이 그자형을 이루고 있다. 가운데 4칸의 온돌방 몸채를 지숙료라고 부르고 있으며 전면 좌우에 1칸씩 마루방이 돌출하여 있는데 왼쪽 돌출부가 시습재, 오른쪽 돌출부가 관란헌이다. 몸채 뒤편의 좌우 돌출부는 특별한 명칭 없이 흙 바닥으로 마무리되어 있을 따름이다. 역시 구조는 간소한 3랑가의 민도리집이다. 이 평면 형태가 과연 1561년 정일에 의해 지어진 농운정사의 모습 그대로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써는 무어라 단정하기 어렵다. 1558년에 퇴계가 이 문량에게 쓴 편지에서 정사를 도토마리제를 취하지 않고 약간 개방된 형태로 구상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며 또 금난수가 쓴 영건기에 정사 규모가 8칸이라고 한 점과는 일치되고 있어서 일단 창건시의 규모와 기본적인 실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짐작할 따름이다.²⁷⁾

4. 3間 形式의 特性과 그 變形

금난수가 적은 〈도산서당영건기〉에서 서당을 가리켜 “用三間之制”라고 정의하였다. 정면 3칸으로 구성된 모습을 가리킨다. 삼간지제는 하나의 보통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지 규모가 3칸이라고 하지 않고 3칸의 제도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3칸으로 된 하나의 고유한 형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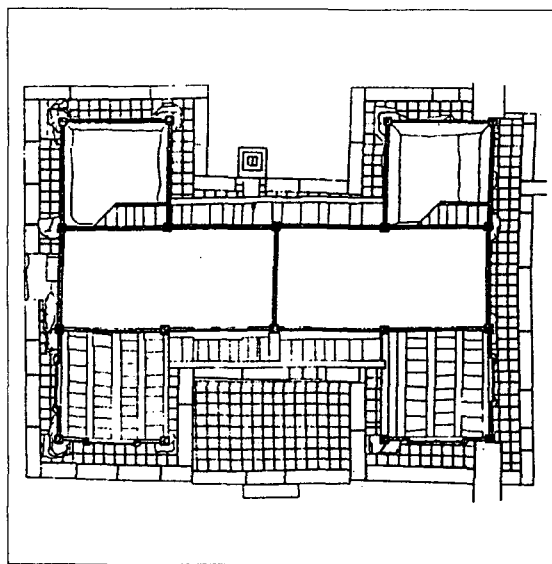


그림 3 농운정사 평면도
(《도산서원실측조사보고서》에서)

다. 더 나아가 16세기에 영남지방에 널리 산재해 있는 이와 유사한 규모의 여러 건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당시 선비들이 학문처로 삼은 건물이 추구하는 하나의 전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산서당은 3칸의 평면중 동쪽 1칸은 마루, 가운데 1칸은 온돌방 그리고 서쪽 끝 1칸은 부엌이다. 바닥 구조로 본다면 마루와 온돌 그리고 흙바닥의 세 가지가 한 지붕 아래 결합된 모습이다. 퇴계의 편지에 의하면 여기 마루 한 칸은 행례 즉 예를 행하는 장소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운데 온돌방은 침실이다. 나머지 서쪽의 부엌은 온돌에 불을 때는 아궁이를 두고 또 물을 끓이기도 하는 여러 목적을 갖었다고 볼 수 있다. 도산서당에서는 가까이에 농운정사가 있고 본격적인 음식 준비는 아마도 이 정사의 부엌에서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당의 서쪽 1칸은 불을 때서 방을 뒤흔치고 차를 마시기 위한 간단한 물을 끓이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산서당의 평면을 이해하는데 좋은 비교 자료의 하나로 도산서당보다 34년 먼저 지어진 경북 봉화에 있는 冲齋라는 건물이 있다. 도산서당과 거의 같은 소위 3칸 형식이지만 도산서당보다 훨씬

27) 《陶山書院古文書1》(退溪學研究叢書 제5집, 檀大出版部, 1994)에 수록된 〈修理日記〉 가운데 1932년 작성된 ‘隴雲精舍重修日記’가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이날 정월 堂會로 모여 정사 중수를 논의하였으며 廚舍를 이건하기로 하고 이 건된 주사는 6간에 새로 동서 각 1동을 달아내어 庫廚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이 때 진도문밖 층계를 개축하고 암서헌 외문층계를 신축하였다고 하며 공사는 도급액 1천금이 들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 때에 정사 주변의 건물은 상당히 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사 자체에 대한 개조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 때 이전된 정사 뒷편 부엌은 지금의 하고직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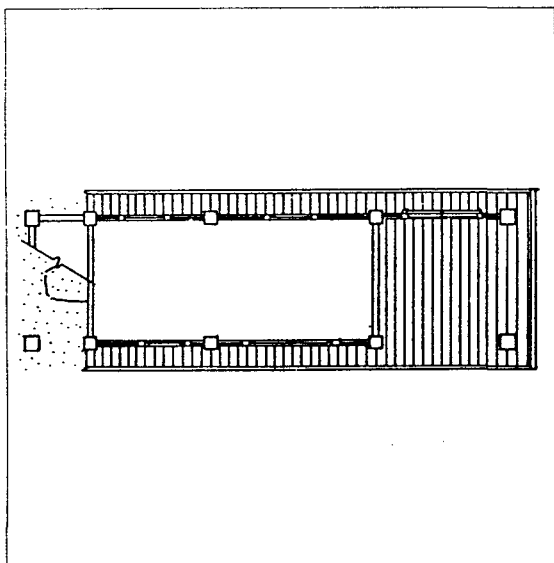


그림 4 충재의 평면 개념도

썬 간소한 구조이고 시원적인 건물이다.

沖齋는 16세기초 영남의 학자 權機이 고향에 내려와 은거하면서 학문과 수양을 위해 지은 건물이다. 권벌은 1478년생으로 퇴계보다는 22년 연상이다. 안동권씨의 유력한 가문으로 집안이 대대로 안동에서 세거해 왔고 권벌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30세에 급제하여 주로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42세 되는 해에 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 때 거처를 옮겨 봉화 유곡에 정착하였다. 유곡에는 후사가 없던 작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많은 토지가 있었다. 이후 53세에 다시 복직이 되기까지 10년간 유곡에 은거하였는데 이 때 유곡에 충재라는 서재를 짓고 그 곁에는 靑巖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1526년 권벌 나이 49세때이다. 권벌은 당시 영남 사림파의 대가였다. 또 학문적으로도 명망을 갖고 있어서 일찍부터 손증돈, 이언적등과 학문 교류를 갖었다. 퇴계 역시 권벌과 교류를 갖었고 유곡을 방문하기도 하였다.²⁸⁾

28) 퇴계는 1565년 유곡을 방문하여 청암정을 노래한 시 두 수를 지었다. 권벌의 아들 東輔는 퇴계에게 학문을 사사하였다. 권벌의 청암정 건립에 대해서는 金東旭, <權機 3代의 亭子 建立에서 본 16世紀 嶺南 地方의 士大夫 建築> (《松峴金

지금 경북 봉화군 유곡리의 권벌 유적지에는 권벌이 살림집으로 지었던 주택과 그 오른쪽으로 서재인 충재 및 청암정이 남아있다. 충재는 정면3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며 남향하고 있다. 건물 평면은 동쪽 끝 한 칸이 마루이고 그 서쪽 한 칸반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온돌방 서쪽 끝 반칸은 바깥이 되며 여기에 방에 불을 넣기 위한 아궁이가 마련되어 있고 아궁이 상부는 다락이 갖추어져서 방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평면의 기본 구성은 마루,방, 그리고 흙바닥인 아궁이 부분이 되는 셈이다. 마루와 온돌방 주변 3면에는 간단한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건물 구조는 매우 간소하다. 낮은 막돌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이 놓이고 그 위에 1자2치 정도의 굵은 네모 기둥이 세워져있다. 기둥위는 특별한 가공 없이 민도리 형식의 3량가로 맞배지붕을 하였다.

충재에서 보는 건물 형식은 선비가 고향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휴식을 취하는 최소 공간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 더울 때 또는 손님이 찾아와 향음례를 행할 때를 위해 간소한 1칸 마루가 구비되고 안쪽에는 사방이 문으로 막히고 추운 겨울을 대비한 온돌방이 있어 독서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룬다. 아궁이 상부의 다락은 학문 탐구에 필요한 약간의 책이나 문구를 둘 수 있는 수장처가 된다. 선비의 학문 공간으로 더 이상의 공간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최소한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최대한의 공간이기도 하다. 건물의 전체 외관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창호는 필요한 위치에 간소한 판창이나 세 살문이 있을 뿐이다.

도산서당과 충재를 비교해 볼 때 두 건물은 기본에서 동일하다. 1칸 마루와 온돌방과 부엌이 구비된 점이나 간소한 구조와 마루의 판창 및 온돌방의 간소한 세살창이 같다. 다만 도산서당은 충재에 없는 공간의 확장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 즉 도산서당은 남면을 제외한 3면에 충재에 없는 퇴간이 있다. 특히 마루의 동쪽에는 익침이라고 하는 덧댄 지붕까지 갖춘 개방된 퇴가 있다. 또 북

--- 嶺博 上 華 甲 記 念 論 叢 >, 1995)을 참조 바람

쪽의 퇴는 온돌방에 작은 반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서쪽 퇴간은 부엌 공간을 확장시켜 준다. 이처럼 도산서당에서는 같은 3칸 형식의 서재이면서 3면의 퇴를 통해서 공간을 유효 적절히 확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의 전체 외관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동서 양쪽의 박공면에 덧 달아 낸 지붕이 가설되고 창호 구성에서도 불규칙한 변화를 보여준다.

도산서당의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는 퇴계의 고안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퇴계가 당초 서당의 그림을 그릴 때 퇴를 달아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을 이문량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산서당영건기〉 중에 서당안에 고서 천여권이 좌우로 서가에 꽂혀있고 실내에는 화분 한 개, 침구, 돛자리, 향로, 혼천의를 두고 남면 상면 시렁에 옷상자와 서류상자가 있고 이밖에 다른 물건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선비가 혼자 학문에 전념하는데 필요한 가재 도구 이외에 아무것도 가식되어 있지 않은 실내 분위기를 엿 볼 수 있다.

도산서당의 건축적 특징은 3칸형식을 유지하면서 실내 공간을 확장시킨데 있다. 선비들의 학문 장소는 16세기에 3칸 규모에 마루와 온돌방을 갖춘 하나의 고유한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3칸 형식 건물은 선비가 학문과 수양 하는데 필요한 최소 크기이면서 또한 더 이상의 크기가 필요하지 않은 최대 공간이기도 하였다. 퇴계는 이 3칸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여기 머물지 않고 실내 공간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 속에서 퇴계는 절제된 하나의 이상적 건축을 만들어내었다.

이런 점에서 도산서당은 기본적인 3칸 형식에서 퇴간을 3면에 열어 공간의 확장과 건물 외관의 변화를 갖추면서도 실내에서는 절제되고 엄정한 선비의 풍모를 잘 간직한 건축이었다고 평가 내릴 수 있다.

5. 建築과 自然의 一體化 - 도산서당의 完成

도산서당 자체는 3칸의 작은 건물이다. 선비의

절제된 생활 철학이 최소 규모의 건축으로 응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최소 규모의 건축은 주변 자연을 건축에 끌어 들임으로써 무한한 크기로 확장될 수 있었다. 퇴계는 서당 주변에 인공적인 시설을 가미하고 또 서당을 둘러싼 자연물 여기 저기에 서당과 연관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도산서당을 다른 어느 건축물에 못지 않은 무한한 크기의 건축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도산서당의 주변에는 작은 연못과 울타리, 그리고 매 란 국 족의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臺가 갖추어 졌다. 이것으로 서당을 감싸는 1차적인 외부 시설이 생겨났다.

〈陶山雜詠〉에

“당의 동편에다 조그마한 모난 못을 파서 그 안에 연을 심고 이름을 淨友塘이라 했으며 또 그 동쪽에다 蒙泉을 만들고 샘 위 산각을 파내려 관한천과 마주 대하게 쌓아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다 매화·대·솔·국화를 심고 이름을 節友社라 했다. 그리고 당 앞에 출입하는 곳은 사립으로 가리워 이름을 幽貞門이라 했다.”

고 적었다. 절우사를 쌓은 것이 1561년 3월이라고 하므로²⁹⁾ 그 전해 11월에 서당을 짓고 나서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봄에 서당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네모난 작은 연못을 파 연을 심고 동쪽 높은 곳에 臺를 만들어 바라다 볼 꽃나무를 심은 것이다. 연못 이름은 朱濂溪의 愛蓮說의 뜻을 취하여 정우라 하였고 유정문은 周易의 履道坦坦 幽人貞吉(도를 실천하는 길이 탄탄하니 숨은 선비가 곧고 길하리라)의 뜻이라고 하였다.³⁰⁾

지금 서당 주변을 보면 위에 적힌 것과 거의 유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서당 앞 마당 동쪽 치우친 곳에 석축을 다듬어 쌓은 네모난 작은 연못이 있다. 또 서당 동편 담 사이를 빠져 나가면 바로 경사진 언덕이 되는데 이곳이 과거 절우사 대가 있던 곳으로 전한다. 또 서당 앞 마당은 사고석으로 쌓은 낮은 담장이 마당 3면을 둘러쌓

29) 〈陶山書堂營建記〉(앞 책)

30) 위와 같음

고 있고 그 중 남쪽 가운데 빈 사이가 있어서 이곳을 유정문으로 부르고 있다. 일단 퇴계의 도산잡영에 나오는 세 시설의 흔적은 남아있는 셈이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시설들은 지난 1970년대 도산서원을 정비하면서 모두 새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들이 퇴계 생존시 만들었던 연못이나 담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일단 시설들이 놓인 위치나 규모 등은 대체로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연못이 만들어지고 곁에 꽃을 심을 수 있는 대가 마련되고 서당 마당을 감싸는 울타리가 갖추어짐으로 해서 도산서당은 단순한 3칸 건물에서 외부 공간을 갖춘 건축으로 확장되었다. 이것이 1차적인 도산서당의 건축확장이라면 다시 2차적인 확장이 이어서 전개되었다.

〈도산잡영〉에서 노래한 서당 주변의 경승은 이러하다.

“문 밖의 오솔길로 시내를 타고 내려가서 동구에 이르르면 두 산록이 서로 마주치는데 그 동쪽 옆에 바위를 열어 채치고 基址를 쌓아 올리면 조그만 정자를 지을 수 있겠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다만 그곳을 보존해 둘 따름이었다. 산의 문 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이름을 谷口巖이라 한다. 여기서 동으로 돌아 두어 걸음을 나가면 산록이 높히 끊어져 바로 濯纓潭 위로 떨어지며 큰 바위가 깎아 질러 층층이 포개져서 십여길의 되어 보인다. 그 위를 쌓아서 대를 만드니 松架가 해를 가리우고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물과 새와 고기가 날고 뛰며 좌우 취병의 그림자가 흔들리어 새파랗게 잠기어서 강산의 승경을 한 번 보아 다 터득할 수 있다. 역시 대를 쌓을 작정으로 이름을 天光雲影이라 했는데 그 경치도 天淵臺만 못하지 않다. 盤陀石은 탁영담 가운데 있는데 그 형상이 울퉁 불퉁하여 배를 매고서 술잔을 건넌만 하다. 매양 장마를 만나 물이 불때면 수면과 가지런히 밀로 감겼다가 물이 지고 물결이 맑아지면 비로소 형태를 드러내곤 한다.”

본래 천연대는 처음 이름을 창랑대라고 해서 이미 서당이 세워지기 전인 1558년 봄에 승려 愼

娟에게 부탁하여 쌓은 것이다. 서당이 완성된 뒤에 동구 입구를 곡구암이라 이름짓고 천연대 앞에 작은 대를 쌓아 천광운영대라고 하였는데 이때가 1563년이다. 천연대와 함께 부를 때에는 천연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천연대나 운영대, 탁영담, 반타석, 곡구암등은 모두 서당 외곽의 자연물이거나 약간의 인공을 가미한 자연물들이다. 이들 자연물에 이름을 지어 줌으로 해서 자연물은 단순한 돌이나 흙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문적인 실체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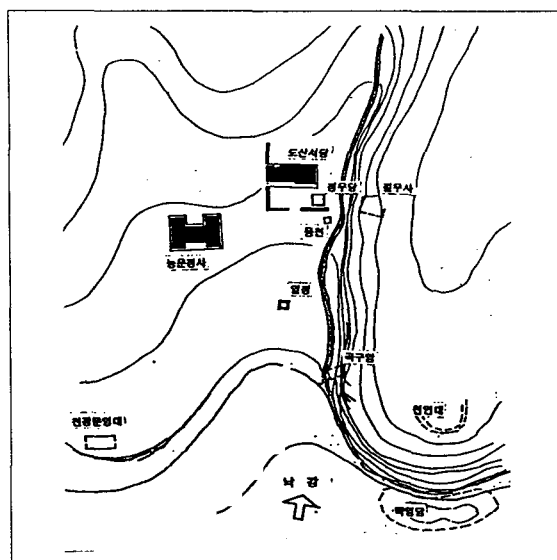


그림 5 도산서당 주변의 여러 시설 배치

퇴계는 서당과 서당 주변의 이들 인공물과 자연물을 두고 18절의 7언시를 지었다. 그 대상은 도산서당, 암서헌, 완락재, 유정문, 정우당, 절유사, 농운정사, 관란헌, 시습재, 지숙료, 곡구암, 천연대, 천광운영대, 탁영담, 반타석, 동취병산, 서취병산, 부용봉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동취병산과 서취병산, 부용봉은 서당이 있는 뒤산인 영지산의 동쪽 줄기와 서쪽 줄기 그리고 남쪽의 봉우리를 가리킨다.

도산서당을 비롯한 18절의 7언시는 구체적인 건물이나 대 또는 자연의 바위나 물 등 도산서당

표 2 陶山雜詠 5言26節의 主題와 주제 설명

주 제	기 사
蒙泉 (몽천)	書堂之東 有泉曰蒙 何以體之 養正之功 (서당 동쪽에 '몽'이란 샘이 있네 무엇으로 체득하리오 바름을 기리는 공을)
冽井 (찬우물)	書堂之南 石井甘冽 千古烟沈 從今勿幕 (서당 남쪽에 돌우물 달고 차네 천고토록 연기 끼었지만 이제부터 덮어 두지 마소)
庭草 (뜨락의 풀)	閒庭細草 造化生生 目擊道存 意思如馨 (한가한 뜨락의 가는 풀이 조화로 돋고 돋네 눈으로 봐도 도가 있어 임의 의사 이렇듯 꽃다왔네)
澗柳 (시내 버들)	澗邊垂柳 濯濯風度 陶邵賞好 起我避慕 (새넷가의 수양 버들 아름다와라 그 자태 도강절·소강절 좋아하여 아득히 나의 추모 일으키네)
菜圃 (채마 밭)	節友社南 疏地爲圃 下帷多暇 抱甕何苦 (절우사 남쪽 빈땅에 채마밭 일구네 휘장내리는 겨울 많으니 물항아리 꺾안음이 어찌 괴로우리)
花砌 (화단)	堂後衆花 雜植爛爛 天地精英 莫非佳玩 (당 뒤의 뭇 꽃들이 섞여 심겨 찬란하네 천지의 정영이 좋은 구경 아니리)
西麓 (서쪽 산 기슭)	悄悄西麓 堪結其茅 以藏以修 雲霞之交 (선명한 서쪽 기슭에 띠집을 엮을 만하네 여기 숨어 수양하니 구름과 노을이 벗이라네)
南泚 (남쪽 물가)	石之揭揭 槩之陰陰 干江之泚 納涼蕭森 (우뚇 솟은 돌과 질푸른 숲이네 강의 가장자리에서 시원한 숲바람 쏘이네)
翠微 (산허리)	翠微翠微 書堂之東 九日故事 感慨余衷 (산이여 산이여 서당 동쪽에 있네 중양절이 되니 옛일들이 내마음 느껍게 하네)
寥郎 (요랑)	寥郎寥郎 精舍之西 仰眺俯瞰 孰知其倪 (요랑요랑이여 정사의 서쪽에 있네 쳐다보고 굽어보니 그 한계 누가 알리오)
釣磯 (낚시터)	臨江苔石 一絲颺風 貪餌則懸 冒利則訐 (강가 이끼 낀 돌에서 낚시줄 드리우니 바람에 한들거리네 미끼를 탐내면 걸리게 되고 이욕에 가리면 서로 다투리라)
月艇 (달빛 실은 배)	一葉小艇 滿載風月 懷人不見 我心靡歇 (한 잎 작은배에 청풍 명월 가득 실었네 그리운 사람 못보니 내마음 다함 없어라)
櫟遷 (역나무 벼랑길)	櫟之不材 多至壽老 厥或不免 乃壽之道 (역나무는 쓸모없어 거의 다 고이 늙어 가네 더러는 먼치 못하지만 이것이 오래사는 길이라네)
漆園 (옻나무 동산)	漆有世用 其割焉保 厥或免割 乃割之道 (옻이 세상에 쓰이니 베어지면 어찌 보존되리 더러는 베어짐을 면하지만 이것이 베임 당하는 길이라네)

魚梁 (어랑)	丙穴底貢 網木如山 每夏秋交 我屏溪間 (병혈 고기 진상위해 산과 같이 나무 옆네 매양 여름 가을 엇갈림 즈음 나는 시내 사이를 막아둔다네)
漁村 (고기잡이 마을)	太平烟火 宜仁之村 漁以代徭 式飽且溫 (태평시대 연화하면 의인의 마을이네 고기잡아 요역 대신하니 배 부르고 등 다습네)
煙林 (안개자욱한 숲)	吟不盡興 畫不盡變 春濃繡錯 秋老霞絢 (시를 읊조려도 흥이 다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도 변화를 다하지 못하네 봄이 짙어지면 숲은 수놓은 듯 어우러지고 가을이 깊어가면 노을이 빛나네)
雪徑 (눈길)	皓皓崖壑 迢迢磴徑 蹈作瑤迹 誰先乘興 (희디 흰 벼랑 골짜기 아득한 비탈 눈길이네 밟아서 옥같은 자국 만드니 누가 먼저 흥을 탔던가)
鷗渚 (갈매기 떠도는 물가)	舞而不下 渠未可干 狎而有盟 吾何敢寒 (춤추며 내려오지 않으니 그대들을 범하지 못하네 친하자고 약속하니 내 어찌 감히 저버리리)
鶴汀 (학이 노니는 물가)	鳴皋開天 掠舟驚夢 野田有侶 蓋慎媒弄 (학이 깊은 늪에서 울면 그 소리 하늘에 들리고 학이 뱃전을 스치면 꿈에서 깨어나네 들 밭에는 짝이 있으니 어찌 매자의 희롱을 삼가지 않으리)
江寺 (강 위의 절)	江上招提 老仙舊居 月寒庭蕪 風悲空虛 (강위의 절은 농암 노선의 옛 거처라네 달빛은 차갑고 뜨락은 묵고 바람은 슬퍼하고 방은 텅 비었네)
官亭 (관가의 정자)	官作之亭 歲月茫茫 樂匪知濠 舉似如棠 (관가에서 지은 정자 세월이 아득하네 호랑濠梁의 즐거움 어나지만 거의 당棠에 간일에 흡사하네)
長郊 (긴 들판)	郊原臚臚 籬落依依 載星而出 帶月而歸 (들판이 넓고 넓어 마을은 아득하네 별빛 이고 나갔다가 달빛 받으며 돌아오네)
遠岫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如黛如簪 非烟非雲 入夢靡遮 上屏何分 (눈썹인 듯 비녀인 듯 안개도 구름도 아니네 꿈에 들면 막힘이 없고 병풍 그림에선 어찌 분간하리)
土城 (토성)	維被南山 因山作城 海桑一朝 蠻觸何爭 (저기 남산에는 산 따라 성을 쌓네 하루 아침에 바닷가 뽕밭되니 어찌 하찮은 일로 서로 다투는가)
校洞 (향교 마을)	古縣鄉校 遺址宛然 麗季孱王 教化無傳 (옛 고을 향교 남겨진 터만 완연하네 고려 중대 없는 임금 교화를 전하지 못하네)

을 둘러싼 자연계의 물체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
어 다시 되게는 5言 雜詠 26節을 지었다. 앞의
18절 7언시가 대부분 무생물인 물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뒤의 26절 5언시는 식물이나 서당
주변의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한 삶의 생생한 모

습을 노래하였다. 도산서당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식물이나 샘물, 또는 강가의 자연과 멀리 강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이르는 인
간사 제반에까지 미친다.

26개의 절구들은 다시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도산서당 주변의 식물이나 서당 가까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을 노래한 대상을 보면 蒙泉, 冽井, 庭草, 澗柳, 菜圃, 花砌가 있다. 몽천은 서당 동쪽 절우사 아래 있는 샘이며 열정은 서당 남쪽의 우물이다. 서당 마당에 핀 미친한 풀도 퇴계의 노래 대상이 되었고 물줄기를 따라 있는 버드나무, 절우사 남쪽 작은 텃밭 그리고 서당 뒷편 꽃나무도 빠뜨리지 않았다.

시선을 멀리 돌리면 西麓과 南洲, 翠微와 寥朗가 있고 다시 釣磯, 月艇, 樸遷, 漆園이 있다. 서록은 서당 서쪽 산 기슭에 구름과 안개가 어우러진 모습을 말하고 남반은 남쪽 물가, 취미는 서당 동쪽의 산허리, 요량은 정사 서쪽 하늘, 조기는 강가의 낚시터, 월정은 달빛 실은 쪽배, 역천과 칠원은 멀리 역나무와 옷나무 동산을 노래한다.

서당 인근의 고기 잡는 사람들이나 농부의 삶도 노래의 대상이 되어 魚梁, 魚村, 煙林같은 제목이 나온다. 고기 잡는 어망을 친 어량이나 서당의 강 건너편 의인 촌 마을을 노래한 어촌, 안개 자욱한 숲을 노래했다.

뒤 이어 나오는 雪徑, 鷗渚, 鶴汀은 눈 내린 길, 갈매기 떠 도는 물가, 학이 노니는 물 가다. 江寺, 官亭, 長郊, 遠沓, 土城, 校洞이 마지막을 이룬다. 강 위에 있는 작은 절, 오래전에 지어진 관가에서 지은 정자, 예안현의 먼 들판 모습, 멀리 산봉우리의 풍경, 남산에 있었던 오랜 토성, 옛 관아였던 곳의 향교 자취등이 노래 대상이 되었다.

7언18절과 5언26절에 이어 다시 5언4절이 있다. 이것은 천연대에서 바라다 보이는 4곳을 노래한 것인데 모두 위치마다 이름난 인물이 관련된 곳들이다. 대상은 蠶巖, 汾川, 賀淵, 屏庵이다. 농암은 서취병의 동편에 있고 蠶巖 李賢輔의 집 곁에 있는 바위이다. 분천은 서취병의 남쪽에 있는데 동네 이름이다. 농암의 아들 碧梧 李文梁이 살던 곳이다. 하연은 서취병 아래로, 承旨 李公幹의 집이 있는 곳이며 병암은 서취병 암벽중에 있는데 上舍 李大用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짓고 단순히 건물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서당 주변에 인공적인 연못이나

울타리를 조성하고 또 주변에 경치를 감상할 대를 쌓고 자연지형에 맞추어 이름을 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서당 안팎의 모든 관련된 사물 즉 정원에 핀 풀 한포기나 샘물, 인근의 물가나 산기슭, 고기 잡는 어부나 농민의 삶의 터전 옛 관아나 허물어 없어진 향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건축을 둘러싼 자연 모두가 관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 마지막 5언4절에서는 인근에 사는 저명한 학자와 그 집이나 터를 노래하였다. 여기에는 인문적 관심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3칸의 작은 집 도산서당은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느 건물에 못지 않은 무한한 건축으로 확산되었다.

퇴계의 도산잡영은 朱子가 지은 雲谷雜詠에서 영향받았다고 한다.³¹⁾ 그러나 퇴계의 시는 가 보지도 않은 공허한 중국의 자연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도산서당 주변의 자연을 노래한 점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도산잡영의 주제는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문적·자연적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섬세한 관찰이 바탕에 깔려있다.

퇴계는 도산서당 자체의 설계도 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건물의 주변에서 전개되는 모든 인문적·자연적 사실들을 건축과 연과시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퇴계의 건축에 대한 자세였다고 하겠다. 퇴계는 인문·자연 총체로서의 건축관을 갖고있었던 것이다. 도산서당은 바로 그 구체적인 실체였다.

맺는글

퇴계가 만년의 학문과 수양을 위해 도산서당을 세운 것은 나이 60세가 되던 1560년이였다. 고향에 사는 친지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퇴계는 書堂과 精舍를 세우기 위해 그 자신 구체적인

31) 李敏弘, 《朝鮮中期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成均館大出版部, 1993), 제2장 退溪 詩歌의 理念과 品格

인 건물의 계획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서당의 형태나 규모를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주칸 치수를 설정하였다. 3면에 퇴주를 세우고 좌우에 익침이라고 부른 덧 달아낸 지붕을 갖춘 구조까지 명시하였다.

서당과 정사 건물은 처음에 퇴계의 집안과 오래 전부터 출입이 있던 본가 안쪽 산 속의 용수사 승려 법련이 주도하였다. 도중에 법련이 사망하자 그의 제자인 정일이 건물을 완성시켰다. 이처럼 승려 장인이 선비의 서당이나 주택 등을 짓는 것은 16세기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완성된 도산서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을 기본으로 하면서 남쪽 정면을 제외한 3면에 퇴칸이 딸린 모습이었다. 지붕을 맞배 지붕으로 하였기 때문에 좌우 퇴칸 상부에는 각각 익침이라는 부분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것은 현존하는 도산서당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산서당 건물은 기본적으로 창건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산서당은 창건시 '3間之制'로 정의되었다. 3칸지제는 이 시기 선비들이 학문과 수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물의 하나의 공통된 형식이었다고 추정되었다. 행례를 위한 개방된 마루 1칸에 온돌방과 간단한 부엌 시설을 갖춘 정면 3칸의 간소한 건물로, 형태는 아무런 장식을 가미하지 않고 가장 절박한 재료를 그대로 노출한 검소한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것은 선비의 학문소로 최소한의 공간인 동시에 더 이상의 공간이 필요없는 최대한의 공간이었다고 보았다. 도산서당보다 오랜 전형적인 것으로 봉화에 현존하는 冲齋를 들었다. 충재가 더 소박하고 초기적인 형태라면 도산서당은 충재의 3칸형식의 실내 공간을 3면 퇴칸을 통해서 더 확장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도산서당이 완성된 후 퇴계는 건물 인접한 주변에 몇 가지 물리적인 인공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담장과 출입문 그리고 연못, 꽃 밭, 우물 및 가까운 주변의 자연 암반이나 전망대등이었다. 이것을 서당을 둘러싼 1차적인 인공적 환경으로 보았다. 이어서 퇴계는 26개의 식거를 통하여 서당

을 둘러싼 인근의 제반 자연물과 주변 사람들의 생활 풍경을 노래하였다. 시들은 모두 서당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 주제는 서당 주변의 샘물이나 각종 식물을 비롯해서 주변 산 기슭의 자연 경관, 멀리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강변에 새들과 물고기, 오랜 역사를 가진 유적들에 이르렀다. 서당을 둘러싼 2차적인 인문적 자연적 요소들이었다.

도산서당은 비록 3칸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1차적인 물리적 환경과 2차적인 인문 자연적 요소를 통해서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1차, 2차 주변 요소들은 모두 퇴계 자신이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노래한 대상들이었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그 건물 자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건물을 둘러싼 인공적, 인문적, 자연적 제반 요소의 총체로 인식하였다고 생각되었다. 이것이 퇴계의 건축관이었다고 하겠다.

【謝辭】 본문 도산잡영 26절의 한글 번역을 도와 주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윤세순씨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新增退溪全書,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所, 1971
 陶山全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退溪學譯註叢書 退溪全書, 退溪學研究院, 1989-1996
 陶山書院古文書, 檀大出版部, 1994
 慵齋叢話
 韓巖先生文集
 月川先生文集
 惺齋先生文集
 松巖集
 眉巖日記抄
 愚潭全集

 張起仁, 韓國建築辭典, 보성문화사, 1985
 張哲秀, 祠堂의 歷史와 位置에 관한 研究, 文化財研究所, 1990
 金一鎭, 도토말이집, 사보 청구, 1991, 신춘호
 李鎬洙,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 건축역사연구, 제2호, 1992.12
 李敏弘, 朝鮮中期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均館大出版部, 1993
 權五鳳, 李退溪家書의 綜合的研究, 京都, 中文出版社, 1995
 金東旭, 權機3代의 亭子建立에서 본 嶺南地方의 士大夫 建築, 松峴金一鎭博士華甲記念論叢, 1995

Toege and the Architecture of Dosan Sodang

Kim, Dong-Uk

ABSTRACT

Dosan Sodang was built in 1560, when Toege I Whang(1500-1571) was 60, as a place in which to study and teach disciples. The building was built to a humble 3-kan system which was a popular form of sodang in the 16th century. There found an enlargement of space by attaching outer walls around three sides which was designed by Toege himself. Minimum in space, moderation in form, control of embellishment, hermit scholar's aesthetics became basic concept of the architecture of Dosan Sodang. After completion of sodang, Toege wrote many poems about pond, walls, flower bed and natural surroundings like sheer cliff, winding river and even rural daily life of villagers around the building. It could be said that for Toege, architecture was cognized as a whole complex of building and its surrounding natural, artificial and human circumstances.